



24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 인근 산지락이 농지개간으로 인해 훼손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야금야금 개발에 신음하는 무등산 자락

나무 마구 베고 땅 파헤치고...지산유원지 삼거리 일대 몸살
동구 민선 6기때 건축허가...임야 훼손 카페사업자·농장주 고발
신양파크호텔도 민간업자에 팔려 대규모 주택개발 우려도

무등산 자락인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 일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자들이 '야금야금' 개발공사 현장을 늘려가면서 수십 년생 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나갔고, 농지와 카페 주차장 조성 탓에 숲이 우거져 있던 산지락도 깎였다. 인근 신양파크호텔마저 최근 민간업자에게 팔리면서 주택개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 동구 산수동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 인근 임야를 훼손한 카페 사업자 A씨와 농장경영주 B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허가 없이 산수동 7-7번지 일원 임야(150㎡)를 깎고 아스팔트 포장(360㎡)

등을 해 주차장과 입도를 만든 혐의다. A씨는 지난해 3월 3592㎡(1090평) 부지에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음식점·전망대 등을 조성한 뒤 방문객이 급증하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임야 등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지 한켠에 조성된 (흡연)전망대의 경우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운 뒤, 궂조를 인근 임야 등으로 던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산불발생마저 우려된다는 게 방문객들의 말이다.

당초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부작용 등을 포함해 무등산이 훼손된다는 상업부지 조성을 반대했으나, 동구는 민선 6기 시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단지(산수동 7-7번지) 건너편에 있는 산지락(산수동 79-2)도 황폐화되긴 마

한가지다. 농장주인 B씨가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비스듬한 산지(1만8012㎡)를 계단식으로 깎아 내린 것이다. B씨는 이 부지용도가 '밭' (田)이기 때문에 농지조성을 위한 산림개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구는 허가 없이 땅을 깎거나 쌓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구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법원판결에 따라 B씨에게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때 광주를 대표하는 호텔이었던 신양파크호텔도 개발업자의 투자 대상이 됐다. 최근 신양파크호텔 맞은편 산지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며 수십년생 나무 수십그루가 베어졌다. 이곳에는 6084㎡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 9동이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지어지고 있다. 건축주는 동구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619㎡에 있는 수십 년 된 나무 24그루를 벌목했다.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투기, 생활·교통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승소

대리운전기사를 실어 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11월 A씨는 업무를 하던 중 적

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연말 우편 집배원 안타까운 죽음

하루 500여건 배송 과도한 업무
배달 도중 오토바이 사고 참변

우편물이 집중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말연시를 맞아 40대 집배원이 배달 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24일 영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영광군 묘량면 편도 1차선에서 우체국 집배원 이모(40)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집배원 근무를 시작했으며, 혼자 영광 대마우체국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씨는 평소 하루 평균 500여건의 우편물을

배송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히 사고 당일 연말 시즌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겹치면서 평소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우편물을 배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현장 주변에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화장 등으로 보이는 우편물이 흐트러져 있었다"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제 시간에 전달하러다 사고가 난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굵어진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퇴폐이발소 업주 살해범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4일 퇴폐 이발소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 등)로 서모(29)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이발소에서 업주 A(여·65)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절도 등 전과 13번인 서씨는 지난 22일 밤 9시 40분께 해당 이발소를 찾아 퇴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A씨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발소 내 CC(폐쇄회로)-TV 분체까지 뜯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건 현장에 있던 종업원 B(여·61)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 신분증을 빼앗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택 침입 흥기 휘두른 20대 검거

목포경찰은 24일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집 주인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10분께 목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고 있던 B(26)씨를 흥기로 4차례 찌른 혐의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손목시계 1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흥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만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신발 환불 거절에 명품매장서 행패 부리고 경찰에게 폭력가치

○··명품브랜드인 루이비통 매장에서 구매한 신발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쇠고랑.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7)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1층 루이비통 매장서 지난달 구매한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신발의 환불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직원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의 배를 발로 한차례 가격했다는 것.

○··앞서 이씨는 지난 12일에도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신발을 던져 매장에 진열된 400만원 상당의 가방에 흡집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흡집 낸 가방값까지 변상하게 된 이씨는 경찰에서 "신발에서 검은 물이 빠지고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겨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됐지만 매장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탓함에 그렸다"고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